

'동물친화도시 전주' 만든다

반려동물 놀이터 ·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등 동물복지 정책 마련

전주시가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등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1,880마리 정도인 전주시역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수를 오는 2025년까지 절반 수준인 1,000마리까지 줄이고, 66.7% 수준인 유기동물 입양·반환률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복지도 챙기기 위한 동물복지 중장기 로드맵인 '동물복지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역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재

웅 교수)는 '동물친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분야별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복지 선진국과 국내 동물복지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과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전시 동물/실험동물 △시민참여 등 5개 분야의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1곳씩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동물등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실효성 확보, 유기동물 등록을 향상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종산업 법제화와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지원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유기동물 분야에서는 유기된 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고, △동물유기 방지와 동물 등록제 개선 △구조 및 보호 제도 △가정 등 임시보호 제도 △입양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시민자원봉사자 협조망 구축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초·중·고 동물실험 금지 권고 △동물명예감시원 확대 △동물복지다움마당 시민참여 확대 등 길고양이와 전시·실험동물, 시민참여 분야의 추진 사업들도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에 포함됐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에 대해 담당부

서의 검토와 동물복지다움마당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 세부 조정 등을 거쳐 전주시 동물복지의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반려동물들과 생활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동물복지 침해 사례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복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은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

클래식 · 비보잉 · 국악연극 · 퍼레이드 등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 상설공연'에 참여하는 총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 공모를 통해 군산 은파호수공원, 수송공원, 구시청 광장 등 야외에서 진행되는 마당상설공연 10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리퍼레이드 1개, 군산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버스킹공연 2개 프로그램을 모집했다.

공모결과 총 55개 프로그램이 신청을 했고 3명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사업 방향과 취지의 부합성에 주요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적절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 4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최종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군산시민오페라스트라 야외에서 듣는 클래식, 비보잉 라스트포인 LA SHOW, 문화예술포럼동조합 별주부의 군산여행 국악연극, 문화포럼 나나래 퓨전해학창극 '춘향이몽' 마당극, 리슨 서커스.U.M.P. 타악문화국흥소리 전통연희 한마당 풍물국악, 타악연희원 아귀 2018아귀 타타-다다 전통타악, 새만금문화봉사단 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리퍼레이드 1개, 군산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버스킹공연 2개 프로그램을 모집했다.

재단은 오는 19일, 선정된 공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별 공연장소, 시간 등을 조율, 오는 28일에 군산시 수송공원에서 별별마당 상설 첫 공연을 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새마을지도자 '전기사용 줄이기' 캠페인

전주에서 활동중인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전력부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나섰다.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장성원)와 전주시새마을협의회(회장 김진용), 전주시새마을회부녀회(회장 강영미)는 17일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남녀 지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부족 피해예방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용 부채를 배부하는 등 울동과 함께 범국민 전기절약 실천 거리캠페인을 했다.

장성원 전주시새마을회 회장은 "유난히 더운 올 여름 전력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주시 않으면 전력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회는 이날 캠페인에 이어 전력수급 위기시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무더위로 텅 빈 전주남부시장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남부시장이 무더위로 인해 장물보러 오는 손님들이 없어 한산하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서난이 의원 ·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 선출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안 심사 다짐

전주시의회는 17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서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도시발전의 토양이 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의 임기로 활동 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서난이 의원(왼쪽) 송영진 의원(오른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494억원(일반회계 1,310억원, 특별회계 184억원)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종합 심사해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송효철 기자

'우리가족 치아건강, 함께 지켜요'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연계 드림스타트 구강교육

전주시 드림스타트와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17일 덕진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아동 치아관리 습관과 충치 없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성인에 비해 치아가 얇고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초등학생이 아동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가족이 함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칫솔질을 해보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했다.

또한, 교육 후에는 충치여부와 부정교합, 잇몸병 여부 등 아동의 구강위생 상태에 대한 검진을 하고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겔 도포를 전 아동에게 무료로 실시했다. 오는 25일에는 완산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학령기는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 함께하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부모의 지속적인 구강보건지도로 아동이 건강한 구강관리 생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피서지 범죄예방 나서

전북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피서지 3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행객이 몰리는 주요 피서지에 절도와 카메라리움 등 촬영(불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여름경찰관서가 운영되는 곳은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남원 뱀사골 계곡, 무주 구천동 계곡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상설중대 경력 지원

을 통해 순찰을 강화한다.

불카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청소년 탈선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카 범죄 현장신고나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소방, 해경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안전환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